

통계 관련 직업 종사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이는 직종의 특성상 가치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작업이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게 되며, 당사자의 윤리적 수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data analyst들은 승인된 과정을 따르고 data integrity를 유지하며, 정확한 계산을 수행하여 그 과정과 결과를 신의 성실하게 보고하여야 하고 기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이 모든 과정을 개인의 가치판단에 의존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에 규정된 ethical guidelines을 따를 필요가 있다.

통계 관련 커리어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integrity다. Integrity는 단순히 명석함이나 기술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정직함을 지켜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경험적 정보를 해석함에 있어 올바른 방식을 취하는 것과 직결된다. 사회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관련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능력을 요구한다. 또한 사회는 통계적 논의들이 편향적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자세 역시 젊은 통계학자들에게 요구된다.

통계 관련 윤리 강령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객관성 추구의 의무이다. 통계학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학문이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학이 인과성의 학문이 아니라 상관성의 학문이라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통계학의 목적은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를 도출하는 것이다. 통계만으로는 무엇이 결과의 원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단지 그러한 경향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통계연구에는 객관성이 절대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상관관계를 도출하는 일은 그 특성상 원인과 결과의 밀접함을 증명하기 어렵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공백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 빈자리를 메우려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주관이 개입된 연구의 성과가 겉보기에 그럴 듯 해 보일지 모르나, 이미 학문적 가치를 잃은 것이다. 객관성이야말로 통계 연구의 핵심이자 존재 이유이고, 통계정보는 그 데이터의 추출과 재단 과정, 그리고 결과의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

같은 맥락에서, 통계인은 미리 예정된 결과를 피해야 한다. 예정된 결과는 주관의 개입을 초래한다. 연구자들은 결과를 내어놓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왜곡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선택이나 해석을 함에 연구자의 편의가 필연적으로 반영되기 마련이고, 연구의 객관성은 상당부분 상실될 것이다.